

무용전공 중국대학생의 언어폭력경험과 사회불안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의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

- 도피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이문준** · 김승일***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 III. 연구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불안장애는 사회공포증이라고도 불리며 개인이 낯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러한 사회불안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데에 지속적이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생겨 사회적 관계 유지와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학자들은 중국 대학생이 사회불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메인그룹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약 16%의 중국 대학생은 자신이 심각한 사회불안을 겪고 있다(Xu, S.P, 2010). 대학생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이유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함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Baumeister의 도피이론 (Escape Theory) 모형은 총 6단계의 인과관계로 자살이라는 최종 결과를 해석하는데 그 중에도 불안을 야기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이나 좌절을 경험하고 얻어진 부정적인 결과를 내면화시켜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지되게 하는 다음에 자신을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에 취약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불안을 비롯한 비정상적인 심리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피이론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외부환경과 경험은 불안을 야기하는 시작점임을 알 수 있다.

* 본 논문은 2022학년도 이문준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무용학 박사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수, sikim@cau.ac.kr

다른 한편에 부정적인 경험에 포함된 언어폭력경험은 물리적인 신체폭력의 결과에서처럼 가시적인 외상을 남기지는 않지만 언어폭력 피해자는 분노, 모욕감, 불안, 두려움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ummings & Leschied, 2001). 신체적 공격보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상대방을 상처를 입힐 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적지 않게 존재하며 사람에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예체능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蘆浩(2016)의 중학교 체육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언어폭력을 비롯한 연구 등이 있지만 중국의 무용분야에 대한 언어폭력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언어폭력의 영향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양적인 연구가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한계점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야 만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체육 분야의 교육환경과 무용 분야의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 유사하고 무용교육 현장의 언어폭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다(노정식, 2009). 한국과 중국의 문화 유사성으로 고려해보면 중국의 무용 교육 현장에서도 언어폭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 교육적인 문제를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중요하게끔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증적으로는 한국학자들이 무용전공 학생의 언어폭력경험을 연구한 결과 무용전공 지도자들의 지나친 거부적 언어는 학생들에게 무용연습이 싫거나 극단적으로는 무용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습시간이나 빈도를 줄여들게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검증하였다(노정식, 2009; 장은별, 2018). 그러나 도피이론의 관점으로 보면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단계적 심리적 경로를 거쳐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노정식(2009)의 무용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언어폭력 경험은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의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더 간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Campbell et al., 1996). 즉, 언어폭력힘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것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으로 자기개념이 낮을 경우,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으며 행복감과 안녕감을 낮게 느껴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아 보인다(김경미, 2016). 다음 단계로는 잦은 사회비교는 자기를 평가 상황에 더 자주 노출시키고 평가 결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야기하며 타인에게 얻는 정보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므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하정희, 2006).

그러나 도피이론 모형은 단계적 관점으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지만 더 복잡한 심리적, 정신적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변인 간의 보다 복잡한 직접, 간접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사회비교경향성을 비롯한 지나친 자기인식 상태로 인해 불안을 야기하는 더 구체적인 원인을 가능하게 밝혀 도피이론 모형을 확장시키고 보완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이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인지와 행동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의 민감성을 갖고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자신이 평가받거나 관찰되는 경우 자신이 타인에게 부족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학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이라고 한다(Marks & Gelder, 1996). Chen Patricia (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비교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에 사회비교를 위협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이라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을 갖게 된다(Buhr & Dugas, 2002).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불안 해 하면서 인내력 부족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대부분 보이게 된다(유영란,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비교경향성과 사회불안 관계에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이들을 도피이론 모형을 확장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도피이론 모형은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정서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심리, 정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반면에 탄력성(Resilience)은 긍정심리학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부정적인 심리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Wu et al., 2018; Tang, 2019). 탄력성이 불안이 형성되는 복잡한 심리적 기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탄력성의 수준 차이가 잠재적 심리요인을 도피이론으로 확장시키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영향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탐색과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무용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현상이 존재함을 실증하고자 하고 기존 연구와 달리 불안을 야기하는 과정을 초점을 두어 도피이론을 바탕으로 무용전공 중국대학생의 언어폭력경험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심리요인으로 도피이론 모형을 확장시키고 보완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구조방정식 관계에서 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학생 심리건강 개선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1. Baumeister의 도피이론(Escape Theory)에 대한 적용

Baumeister의 도피이론은 쉽게 해석하자면 외부환경으로 인해 내면화된 자아인식이 복잡해지며 심리적, 인지적 여러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한 도피이론모형은 자살이라는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 6단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예측요인들이 작용하는 방식과 선형적 경로(linear paths)를 탐색하여 자기 파괴적 행동의 인과관계와 과정(process)을 보여주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Dean & Range, 1996 ; Blackburn et al., 2006).

도피이론모형은 초기에 자살을 예측하기에 한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자살뿐만 아니라 도피성이 보이는 과량음주, 폭식,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을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도 다양한 연구 환경에서 적용함으로써 대중들의 심리와 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에 관련한 연구에 도피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 부정적인 행동하는 원인들이 밝혀졌다(Walburg, Mialhes & Moncla,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도피이론을 무용 교육 분야에 적용하여 무용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인 언어폭력경험을 도피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무용 전공자들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피이론 모형의 1단계인 부정적인 외부환경은 언어폭력경험으로 적용하였다. 언어폭력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가장 전통적인 정의에 따라 의사소통 갈등 상황에서 가혹하게 비난당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말로 모욕을 주고, 고함을 치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자 타인의 자아개념을 습격하는 언어공격이라 볼 수 있다(진주혜, 2019). 그 다음 단계는 내 부귀인 자기비난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개념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란 자기개념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의된다(Campbell et al., 1996). 다음 단계인 높은 자기인식은 자기(Self)와의 관계에서 빈번히 외부에서 얻어진 정보를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개인성향으로 정의된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으로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단계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불안장애로 적용하였다.

2. 연구가설 도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학대가 자기체계손상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 적어 있다(김해랑, 홍혜영, 2017). 또한, 학교 교육현장에 관련한 연구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건이 학생 자기개념 명확성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Feng,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언어폭력경험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rvidio et al.(2021)의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의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는데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적비교경향성은 부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Geng et al.(2016)의 청소년 스마트 이용과 자기개념 명확성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적비교경향성 간은 밀접한 부정적 상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2: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인 능력비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인 의경비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비교경향성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육수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현수, 문민권, 2014). 또한 성인초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사회적비교경향성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정은, 홍정순, 201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4: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인 능력비교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인 의경비교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 예상하였고 취업불안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관계를 사회비교경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두 변인의 관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김태정, 민경화, 2020). 류슬기(2022)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과 취업불안은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6: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인 능력비교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인 비교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 홍정순(2019)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도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사회비교경향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 연구와 같은 경우 Sigurvinsdottir et al.(2021)은 VR 가상현실 환경에서의 사회불안과 발표에 대한 괴로움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Wang & Zhang (2021)은 신입 직원의 대인관계와 도움추구행동 영향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8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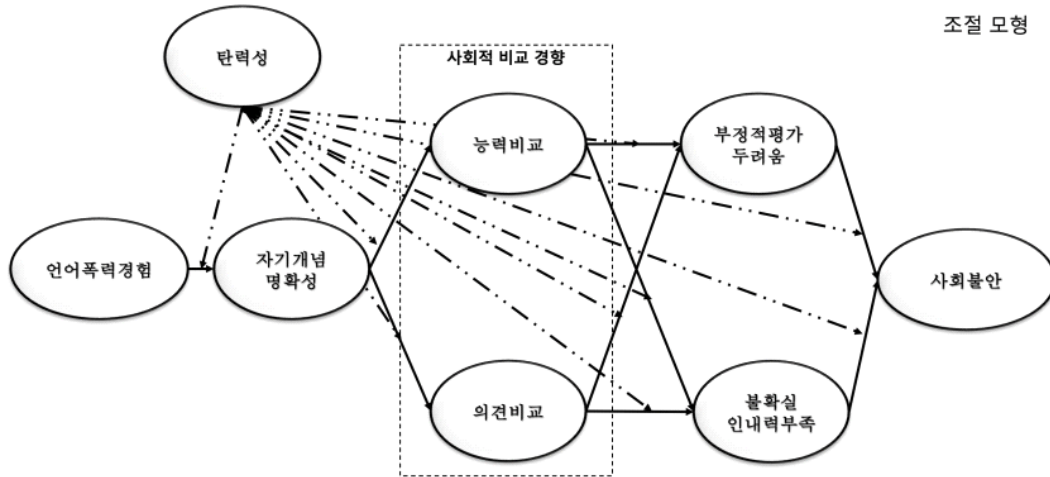
Alison E.J. Mahoney & McEvoy Peter M (2012)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있을 때 사회불안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증적으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다(박누리, 2018). 또한 Bijsterbosch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불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성의 신체 불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력성과 위에 제시한 다른 변인과의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의 자아능력과 학업실패내성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탄력성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탄력성과 학업실패내성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Kim & Choi, 2020).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10: 탄력성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영향경로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III. 연구방법

1. 변수 측정 및 설문 구성

본 연구모델의 구성요인인 언어폭력경험, 자기개념명확성, 사회적 비교경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사회불안, 탄력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모든 선행연구를 통해서 개발하였다. 언어폭력경험은 Manderino & Banton(1994), 남경동 등(2005) 연구를 통해 총 11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게 구성하였다. Leary(1983),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타당화한 12개 문항을 사용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Campbell et al. (1996) 개발하고 김대익(1998)이 변안한 자기개념 명확성 6문항을 수정과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역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Buhr와 Dugas(2002)가 개발하고 김순희(2010)가 변안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비교 경향성은 Gibbon과 Buunk(1999)가 Festinger의 사회비교이론을 근거로 개발하고 최윤희(2003)가 변안한 총 10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끔 구성하였다. Mattick과 Clarke(1998) 개발하고 김향숙(2001)이 변안하여 타당화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끔 총 5문항을 통해 사회불안을 측정하였다. 탄력성은 Campbell-Sills, L., Stein, M. B., (2007)이 사용한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여 모든 문항이 리커트 7점 척도 (Likert Scale)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설문 문항

변수	문항	참고문헌
언어적 폭력 경험 (독립변수)	Q1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Manderino & Banton, 1994; 남경동 등, 2005
	Q2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에게 반말 또는 막말을 한 적이 있다.	
	Q3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에 관해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Q4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를 비난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Q5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에게 강압적이고 명령조인 투로 말한 적이 있다.	
	Q6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에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다.	
	Q7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에게 위협적으로 협박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Q8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의 외모나 신체상에 대해서 비꼬는 말을 한 적이 있다.	
	Q9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의 성격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Q10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의 능력에 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Q11 나의 지도자/선배/동료들은 나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대해 듣기 거부한 응답 또는 무시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매개변수)	Q1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된다.	Watson & Friend, 1969; Leary, 1983; 이정훈, 최정훈, 1997
	Q2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걱정된다.	
	Q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 질까봐 자주 걱정된다.	
	Q4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 염려한다.	
	Q5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Q6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찾아낼 것 같아 걱정된다.	
	Q7 나에 대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쓴다.	
	Q8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염려된다.	
	Q9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 대개 걱정된다.	
	Q10 누군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알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Q11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때때로 지나치게 염려한다.	
	Q12 말을 실수하거나 일을 잘 못할까봐 종종 걱정된다.	
자기개념 명확성 (매개변수)	Q1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불일치할 때가 있다.	Campbell et al., 1996; 김대익, 1998
	Q2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변한다.	
	Q3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Q4 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것 같다.	
	Q5 내 성격이 모순적인 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다.	
	Q6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매개변수)	Q1 나는 깜짝 놀라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참을 수 없다.	Buhr & Dugas, 2002; 김순희, 2010
	Q2 불확실함으로 인해 나는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	
	Q3 행동을 취해야 할 때, 상황이 불확실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Q4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Q5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Q6 나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변수	문항	참고문헌
사회적 비교 경향성 (매개변수)	Q1 나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애인, 가족 등)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한다.	Gibbon & Buunk, 1999; 최윤희, 2003
	Q2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Q3 내가 일을 잘 했는지 알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한다.	
	Q4 사회성 있게 행동(예: 대인관계, 인기도)하고 있는지 타인과 비교하곤 한다.	
	Q5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행동을 비교해보는 타입이다.	
	Q6 나는 종종 내가 인생에서 달성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달성한 것을 비교한다.	
	Q7 나는 종종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얻기 위해 타인과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Q8 나는 종종 누군가 나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지곤 한다.	
	Q9 나는 항상 나와 상황(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알고 싶다.	
	Q10 나는 나의 상황을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한다.	
사회불안 (종속변수)	Q1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Gibbon & Buunk, 1999; 최윤희, 2003
	Q2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Q3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Q4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긴장된다.	
	Q5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탄력성 (조절변수)	Q1 I able to adapt to change	Cannor & Davidson, 2003; Campbell, 2007
	Q2 I can deal with whatever comes	
	Q3 I try to see humorous side of problems	
	Q4 Coping with strees can strengthen me	
	Q5 I tend to bounce back after illness or hardship	
	Q6 I can achieve goals despite obstacles	
	Q7 I can stay focused under pressure	
	Q8 I am not easily discouraged by failure	
	Q9 I thinks of self as strong person	
	Q10 I can handle unpleasant feelings	

다음은 본 연구 구성한 한국어판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연구자가 번역 작업을 마친 후 한국어를 중국어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옮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어학과 한국인 박사 2인과 반복 검토하고 베이징대학교 중국어 전공을 졸업한 교수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자의 번역작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 예비조사 및 본 조사

본 조사 앞서 응답자들이 설문지 문항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무용전공 6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 모두 0.84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측정 문항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표현과 중국

어 표현에 있어서 언어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거침없이 읽을 수 있게끔 모호한 부분인 역 문항들을 정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중국 대학 무용 전공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각 대학교 무용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 담당강사를 통해 직접 학생에게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였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게끔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선정에 있어서 중국 남부지역에 있는 광둥성, 중부지역에 있는 후베이성, 서남지역에 있는 사천성, 북부지역에 있는 천진시, 동북지역에 있는 랴오닝성의 종합대학교 및 예술전문대학교 등 여러 대학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1차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400부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의 개연성이 높은 177부를 제외하여 223부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2차 설문조사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총 800부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의 개연성이 높은 373부를 제외한 42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5.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하고 자료를 입력한 후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기를 통해서 인구통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5.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값(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내재된 요인 확인과 측정구조모형이 가설적으로 구축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AMOS 23.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근거적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에 관계를 설정하고 탐색적인 요인분석 실시 후 실시한 분석 기법이다. 이 기법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모델 적합도, 요인 간에 집중타당성과 구성 개념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잠재변수 간에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이 제공하는 적합도 지표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언어폭력경험,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적 비교경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조절변수가 구조모형에서 경로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중 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

본 조사를 통하여 받았던 설문지 표본의 기술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전체 응답자 수는 427명이며, 무용학과 학생집단 구조에 있어서 남녀 인원수 차이가 있는 관계로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남학생 71명(16.6%), 여학생 356명(83.4%)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35명(31.6%), 2학년 148명(34.7%), 3학년 64명(15.0%), 4학년 80명(18.7%)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세 이하 216명(50.6%)로 가장 높았고, 20-21세 이하 179명(41.9%), 22-23세 이하 28명(6.6%), 24세 이상 4명(0.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은 전문대 223명(52.2%), 종합대 204명(47.8%)로 나타났고, 출신 고등학교 유형은 인문 269명(63.0%), 전문 158명(27%)로 나타났다. 전공은 무용 퍼포먼스 261명(61.1%)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무용이론 115명(26.9%), 안무 51명(11.9%)로 그 뒤를 이었다.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모형분석을 실시하기 전, 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수의 측정 지표들에 대한 타당도(Validity) 검증은 하기 위하여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KMO값0.94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6362.064로 나타났으며 Chi-Square=16362.064, p 값 0.00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분석 결과, 모든 변인이 0.7보다 높게 나타나서 변인 측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신뢰도분석,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VV	FN	SCC	INCOM1	INCOM2	IUS	SIAS
VV	.930						
FN	.333***	.947					
SCC	.503***	.597***	.908				
INCOM1	.325***	.562***	.488***	.943			
INCOM2	.368***	.558***	.571***	.620***	.940		
IUS	.314***	.565***	.501***	.529***	.455***	.916	
SIAS	.267***	.420***	.377***	.410***	.271***	.454***	.919
Mean	2,960	4,940	4,760	3,770	4,820	4,410	3,150
Cronbach'a	.950	.955	.869	.920	.865	.850	.872
CR	.951	.956	.868	.922	.867	.864	.874
AVE	.638	.646	.525	.664	.622	.514	.582

Note¹: Goodness-of-Model-Fit: $X^2 = 2853.858$, $DF = 1154$, $p < .000$, $GFI = .778$, $NFI = .833$, $IFI = .893$, $TLI = .886$, $CFI = .893$, $RMSEA = .059$

Note²: FN: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VV: 언어폭력경험, SCC: 자기개념 명확성, IU: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INCOM1: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능력비교, INCOM2: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의견비교, SIAS: 사회불안

Note³: *** $P < 0.001$, ** $P < 0.01$, * $P < 0.05$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FI, CFI, NFI, IFI, TLI, RMSEA를 비롯한 적합지수로 기준값을 충족하므로 본 연구모델의 요인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분석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관찰변인의 AVE 값은 기준 0.5보다 높게 나타나서 집중타당성이 문제없음 검증하였다. 또한, 모든 CR 값은 기준 0.7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 신뢰도가 문제없음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잠재변수 간에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잠재변수의 평균 분산추출 제공근 값이 변수 간에 상관관계 계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4. 경로 분석

경로분석에 앞서 구조모형의 모델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 모형 모델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 값을 충족하므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적합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변수 간에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언어 폭력경험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능력비교,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의견비교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능력비교와 의견비교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불안에 정적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경로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S.E	T값	채택 여부
VV → SCC	.518	.039	9.039***	채택
SCC → INC1	.545	.072	8.764***	채택
SCC → INC2	.626	.063	9.222***	채택
INC1 → FNE	.379	.047	7.341***	채택
INC1 → IUS	.422	.051	6.977***	채택
INC2 → FNE	.385	.061	7.179***	채택
INC2 → IUS	.251	.059	4.513***	채택
FNE → SIAS	.249	.049	4.506***	채택
IUS → SIAS	.323	.059	5.259***	채택

R² (SCC) = 26.8%; R² (IUS) = 31.4%; R² (INC2) = 39.2%; R² (FNE) = 39.2%; R² (INC1) = 29.7%;

R² (SIAS) = 22.2%

Goodness-of-Model-Fit: X² = 3026.549, df = 1166, IFI = .883, TLI = .877, GFI = .770, CFI = .883, RMSEA = .061

Note¹: FNE: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VV:언어폭력경험, SCC:자기개념 명확성, IUS: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INC1: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능력비교, INC2: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의견비교, SIAS:사회불안

Note²: *** P < 0.001, ** P < 0.01, * P < 0.05

5.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전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모델 적합하다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경험과 사회불안 각 변수들의 총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의견이 사회불안에 대한 총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 간의 총효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언어폭력경험 → 자기개념 명확성 → 사회적 비교경향성(능력 비교)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언어폭력경험 → 자기개념 명확성 → 사회적 비교경향성(능력 비교)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사회불안], [언어폭력경험 → 자기개념 명확성 → 사회적 비교경향성(의견 비교)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언어폭력경험 → 자기개념 명확성 → 사회적 비교경향성(의견 비교)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사회불안] 총 4개의 유의미한 간접 경로를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매개효과

경로			총효과 (Total Effect)			
			Bootstrapping	95%CI		p-value
				Estimate	Lower	
VV → INC1			.257	.161	.342	.010*
VV → INC2			.236	.162	.300	.010*
VV → FNE			.247	.148	.326	.010*
VV → IUS			.216	.128	.304	.010*
VV → SIAS			.176	.085	.272	.010*
SCC → FNE			.548	.519	.819	.010*
SCC → IUS			.515	.349	.645	.010*
SCC → SIAS			.329	.196	.458	.010*
INC1 → SIAS			.256	.123	.387	.010*
INC2 → SIAS			-.078	-.238	.062	.269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경로			Bootstrapping	95% CI		p-value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Estimate	Lower	Upper	
VV	SCC-IC1-FNE	SIAS	.017	.005	.033	.010*
VV	SCC-IC1-IUS	SIAS	.025	.012	.046	.010*
VV	SCC-IC2-FNE	SIAS	.020	.005	.038	.010*
VV	SCC-IC2-IUS	SIAS	.017	.006	.033	.010*

Goodness-of-Model-Fit: $X^2 = 2947.307$, $df = 1156$, $IFI = .887$, $TLI = .880$, $GFI = .776$, $CFI = .887$, $RMSEA = .060$

Note¹: FNE: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VV:언어폭력경험, SCC:자기개념 명확성, IUS: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INC1: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능력비교, INC2: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의견 비교, SIAS:사회불안

Note²: *** $P < 0.001$, ** $P < 0.01$, * $P < 0.05$

6.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탄력성이 구조모형에서 경로계수를 조절하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전,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모델 적합하다고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력성 수준에 따라 각 경로의 모수치에 의하여 탄력성 높은 집단과 탄력성 작은 탄력성 집단 간의 조절효과 상대비교를 통해서 경로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의 경로에서($\Delta X^2(1) = .159, P < 0.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5> 조절효과

경로	집단1(N =235)		집단2(N = 192)		자유모델 Baseline Model (Freely estimated)	제약모델 Nested Model (Equally restricted)
	β	t-value	β	t-value		
VV→SCC	.327	6.753***	.376	5.890***	$X^2(318) = 4695,258$	$X^2(317) = 4695,647$
SCC→INCOM1	.568	6.204***	.676	6.011***	$X^2(318) = 4695,258$	$X^2(317) = 4695,809$
SCC→INCOM2	.655	7.379***	.500	5.770***	$X^2(318) = 4695,258$	$X^2(317) = 4696,737$
INCOM1→FNE	.243	4.271***	.353	4.975***	$X^2(318) = 4695,258$	$X^2(317) = 4696,398$
INCOM1→IUS	.248	4.150***	.353	4.552***	$X^2(318) = 4695,258$	$X^2(317) = 4696,151$
INCOM2→FNE	.532	6.801***	.462	4.352***	$X^2(318) = 4695,258$	$X^2(317) = 4695,468$
INCOM2→IUS	.512	6.202***	.134	1.335	$X^2(318) = 4695,258$	$X^2(317) = 4701,315$
FNE→SIAS	.230	2.751**	.185	3.073***	$X^2(318) = 4695,258$	$X^2(317) = 4695,418$
IUS→SIAS	.367	3.703***	.236	3.343***	$X^2(318) = 4695,258$	$X^2(317) = 4696,212$
Chi-square difference test						
$\Delta X^2(1) = .389, P > 0.05, \text{ 각각}$		$\Delta X^2(1) = 1.140, P > 0.05, \text{ 각각}$		$\Delta X^2(1) = 6.057, P > 0.05, \text{ 각각}$		
$\Delta X^2(1) = .551, P > 0.05, \text{ 각각}$		$\Delta X^2(1) = .892, P > 0.05, \text{ 각각}$		$\Delta X^2(1) = .159, P < 0.05^*, \text{ 채택}$		
$\Delta X^2(1) = 1.479, P > 0.05, \text{ 각각}$		$\Delta X^2(1) = .209, P > 0.05, \text{ 각각}$		$\Delta X^2(1) = .954, P > 0.05, \text{ 각각}$		

Goodness-of-fit statistics for the baseline model: 4695,258, df = 318, IFI = .857, TLI = .848, CFI = .856

Note!: FNE: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VV:언어폭력경험, SCC:자기개념 명확성, IUS: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INC1: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1-능력비교, INC2:사회적 비교경향성 하위요인2-의견비교, SIAS:사회불안

Note² :*** P < 0.001, ** P < 0.01, * P < 0.05

V. 결론

1.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했던 Baumeister의 도피이론(Escape Theory)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했던 언어폭력과 사회불안 연구를 통합해 무용학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언어폭력경험,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경향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간에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 도출된 결과가 기존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무용교육 현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그 영향관계를 알 수 있었다. 무용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eng Shu(2016)와 정은별(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비교경향의 능력 비교, 의견 비교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가설도출을 사용한 선행연구 Servidio et al.(2021), Geng et al.(2016)은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사회비교경향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는 전현수와 문민권(2014), 김경은과 홍정순(2019)의 연구결과가 뒷받침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을 기존 연구 김경은(2019)과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 변수 탄력성을 고려하여 도피이론모델을 확장시켰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탄력성은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성 높은 학생과 탄력성 낮은 학생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 탄력성이 높은 학생집단이 낮은 학생집단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의 영향을 받아 느껴진 사회불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Han(201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언어폭력경험과 사회불안 간의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먼저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경향성 하위요인인 능력비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 영향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경향성 하위요인인 능력비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거쳐 영향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경향성 하위요인인 의견비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영향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경향성 하위요인인 의견비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통해 영향관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변수와 변수 간에 더 복잡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중국 무용 기초 교육의 현실적 문제는 무용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신체의 유연성과 뛰어난 테크닉을 고유하게 강조해 왔다. 심지어 춤의 표현력을 무시하고 유연성과 테크닉의 수준으로만 학생의 무용수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신체의 유연성과 테크닉은 무용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나치게 중요시하면 춤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다. 무용지도자나 학생들이 뛰어난 유연성과 테크닉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왜곡되면 무용을 수행할 때 체벌, 언어적인 자극, 욕설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부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참아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살찐어?”; “너 무용 포기해라”; “다른 학생들이 다 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를 비롯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말투를 사용하면 결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심리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이어진다.

중국문화에 있어서 아동 중심으로의 시각보다는 어른 중심으로의 시각을 강조하며 널리 인용되는 중

국 속담에 따르면 '혼내고 꾸짖는 것이 사랑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피해 행위가 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여겨진다(Liu, Wang, 2018). 이 속담의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이 무용 교육 현장에서 선생이나 교수들이 학생들을 적당하게 혼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격려가 될 수 있으나 혼내는 정도를 폭력으로 판단하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잘못된다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폭력행위가 특별한 관심이나 자신을 엄격하게 키우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하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도 어려워진다. 또한 외모, 몸체, 유연성, 테크닉 등 외부조건에 경쟁이 치열한 중국 무용학과에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선배를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언어폭력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규제제도를 마련하기보다 지도자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을 유발할 수 있듯이 지도자가 과거에 학생으로서 경험한 올바른 지도방식에 대해서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을 통해 교육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현장에서의 언어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와 동시에 지도자가 학생 집단에서 발생이 가능한 언어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생의 부정적 정서가 생길 때 즉시 심리상담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지도자가 학생을 교육시킬 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마다 갖고 있는 성격이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적인 지도방식과 교육목표로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면 학생의 창의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롭지 않다.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올바르게 인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그들의 건전한 인격과 자아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사회비교경향성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도자가 학생을 평가할 때도 다른 학생과 비교하는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학생을 자신을 집중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게끔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교육시킬 때 학생의 심리적 탄력성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학교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정서와 심리의 발달이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하는 과정에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도자가 학생의 개인적 심리적 탄력성을 파악하여 잘못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학생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식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학생의 심리적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강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부정적 평가와 불확실한 상황과 마주칠 때 탄력성을 비롯한 심리적 조절기제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건강을 향상시킬 때 탄력성의 양성은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며 학생들이 부정적인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탄력성을 양성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인 시사점과 더불어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언어폭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도피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변수를 제시하였고 세운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도피이론의 일부인 부정적 정서가 생기는 단계에 한하여 행동적인 단계까지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연결시키고 이어서 무용전공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도피이론 모형의 관점에 언어폭력경험, 자기개념 명확성, 사회비교경향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불안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이론적이나 실무적인 고찰을 통해 변수와 변수 간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어적 폭력은 주권적인 언어, 모욕적인 언어 등 세분화시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규범, 권력 등 다양한 행위능력 등을 형성하는데 사회불안과 언어폭력과의 관계는 광의적인 범주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실무적인 관찰을 다양하게 결합하기 통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 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최대한 응답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보해봤지만 도출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을 대학생에 한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시기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았다. 향후연구는 같은 표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시기별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결과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도피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주요 구성개념을 해석할 수 있는 측정항목을 도피이론 모형에 적합하게끔 구성해봤다. 해당 측정 문항들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채택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나 영어로 반영된 문항들을 중국어로 옮겼다. 물론 측정문항의 번역 작업의 타당성을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으나 측정문항의 정교함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 참고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김정미(2016).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3(10), 235-257.
- 김정은, 홍정순(2019). 성인초기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격려를 통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731-757.
- 김대익(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순희(2010).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태정, 민경화(2020). 취업준비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비교 경향성의 매개효과. *취업진로연구*, 10(1), 31-53.
- 김해량, 홍혜영(201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자기체계 손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321-340.
- 김향숙(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남경동, 윤계숙, 정혜선, 박순애, 장부영, 성영희(2005).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 측정 도구의 개발. *간호행정학회지*, 11(2), 1-27.
- 노정식(2009). 무용전공 예술고등학생의 언어폭력 경험과 자존감 및 무용연습정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18, 1-18.
- 류슬기(2022).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누리(2018). **자기개념 명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유영란(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30(30), 115-138.
- 이정윤, 최정훈(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장은별(2018). **무용전공자의 부정적인 신체평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현수, 문민권(2014). 인문, 사회과학편: 고등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체육수업 스트레스간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3(5), 111-122
- 진주혜(2019). 대학생 간 언어폭력: 불쾌함의 상처. *질적연구*, 20(1), 68-77
- 최윤희(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하정희(2006). **남·녀 청소년의 사회비교 경향성, 비합리적 신념과 성취목표와의 관계**. 한국교육심리

- Bijsterbosch, J. M., van den Brink, F., Vollmann, M., Boelen, P. A., & Sternheim, L. C.(2020).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social anxiety, and body dissatisfaction in wome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8*(10), 833-835.
- Blackburn, S., Johnston, L., Blampied, N., Popp, D., & Kallen, R.(2006). An application of escape theory to binge eating.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4*(1), 23-31.
- Buhr, K. & Dugas., M. J.(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and Research and Therapy, 40*, 931-945.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ampbell-Sills, L., & Stein, M. B.(2007). Psychometric analysis and refinement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Validation of a 10-item measure of resili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20*(6), 1019-1028.
- Chen, P.(2010). *Yin and Yang theory of competition: Social comparison and evaluation apprehension reciprocally drive competitive motivation* [Doctoral's thesis, The 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Archive. <<https://deepblue.lib.umich.edu/bitstream/handle/2027.42/77608/patchen.pdf?sequence=1>>
- Cummings, A. L., & Leschied, A. W.(2001). Understanding aggression with adolescent girl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20*(2), 43-57.
- Dean, P. J., & Range, L. M.(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and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Death Studies, 20*(4), 415-424.
- Feng, S.(2016).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Stud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cept*. [Doctoral's thesi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Archive. <<https://www.proquest.com/docview/1964278744?pq-origsite=gscholar&fromopenview=true>>
- Geng-Feng, N. I. U., Zong-Kui, Z. H. O. U., Yuan, T. I. A. N., Qiang-Ai, L. I. U., & Shuai-Lei, L. I. A. N.(2016). The effect of adolescents' social networking site use on self-concept clarity: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39*(1), 97
- Han, X., & Li, Z.(2019). Unbearable We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Evaluation of Fear, 9*(1), 1-10.
- Kim, S., & Choi, N.(2020).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go func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ffecting academic failure tolerance in early school age: Analysis by grade level

- considering sustainability of academic motivation. *Sustainability*, *12*(5), 1888.
- Liu, L., & Wang, M. (2018). Parental harsh discipline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in China: perceived normativeness as a moderator. *Child Abuse & Neglect*, *86*, 1-9.
- Mahoney, Alison. E.J, & McEvoy, Peter. M. (2012). Changes in intolerance of uncertainty during cognitive behavior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3*(2), 849-854.
- Marks, I. M. & Gelder, M. (199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2), 218-221.
- Servidio, R., Sinatra, M., Griffiths, M. D., & Monacis, L. (2021).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fear of missing out as mediators between self-concept clarity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Addictive Behaviors*, *122*, 107014.
- Sigurvinsdottir, R., Soring, K., Kristinsdottir, K., Halfdanarson, S. G., Johannsdottir, K. R., Vilhjalmsdottir, H. H., & Valdimarsdottir, H. B. (2021). Social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Distress 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Behaviour Change*, *38*(2), 109-118.
- Tang, W. K. (2019). Resilience and self-compassion related with achievement emotions, test anxie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Studies*, *64*(1), 92-102.
- Walburg, V., Mialhes, A., & Moncla, D. (2016). Does school-related burnout influence problematic Facebook u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1*, 327-331.
- Wang, C., & Zhang, Y. (2021). New employees'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help-seeking behavior: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as mediat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9*(10), 1-10.
- Wu, L., Zhang, D., Cheng, G., & Hu, T. (2018). Bullying and social anxiety in Chinese children: Moderating roles of trait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suzhi. *Child Abuse & Neglect*, *76*, 204-215.
- Xu, S. P. (2010). *Interpretation bias and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s*. [unpublished doctor's thesis]. Shanghai: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논문투고일 2022. 08. 15.

심사일 2022. 08. 29.

심사완료일 2022. 09. 05.

**Analysis of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Psychology
Factors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al Violence
Experience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Dance Studies and Social Anxiety**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Escape Theory –

Li, Wen-Jun* · Kim, Seung-il**

Ph.D,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 on social interactional anxiety, focusing o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dance studies. This study built a research model by applying the escape theory. This study developed verbal violence as a dependent variable. Self-concept clarity,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were developed as mediators. Social interaction anxiety was develop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also added resilience as a moderator to illustrate the differential effect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427 usable sources (college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applied by SPSS 25.0 and AMOS 23.0.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all the variables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Meanwhile, the significantly indirect path has been found. Lastly, the level of resilience has a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 on the path.

Keywords: Dance major(무용 전공자), Escape theory(도피이론), Verbal violence(언어폭력), Social interaction anxiety(사회불안), Resilience(탄력성)